

다니엘서 - 번호 158

환상의 베일을 벗기기: 다니엘서의 애도의 날들 이해하기

Jeff Pippenger

2024-03-25

바사 왕 고레스 제삼년에 그 이름이 벨드사살이라 불리던 다니엘에게 한 일이 나타났으니, 그 일은 참되었으나 정해진 기한은 길었더라. 그가 그 일을 깨달았고 그 환상에 대한 깨달음도 있었더라. 그때에 나 다니엘은 온전한 세 이레 동안 애통하였느니라.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였고 고기나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아니하였으며 또 기름도 전혀 바르지 아니하였으니 온전한 세 이레가 차기까지 그리하였더라. 첫째 달 이십사일에 내가 히데켈이라 하는 큰 강 가에 있었더라. 다니엘 10:1-4.

요한계시록 11장의 상징적인 사흘 반 동안, 두 증인이 거리에 죽어 있을 때, 어떤 '것'이 벨드사살에게 계시된다. 그는 앞서 그 '환상'(mareh)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9장에서 가브리엘이 이미 와서 그 환상을 깨닫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기도하며 말하고 있을 때, 처음에 환상 중에 보았던 그 사람, 곧 가브리엘이 급히 날아와 저녁 제사 때쯤 나를 만졌다. 그리고 그가 내게 알리며 나와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네게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네 간구가 시작될 때에 명령이 나왔고, 내가 그것을 네게 알리려고 왔으니, 네가 크게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유의하라. 다니엘 9:21-23.

다니엘이 "처음 환상에서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은 예언적 역사의 환상인 "하존(chazon)"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8장에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성경 예언에 나오는 왕국들의 환상을 해석해 준 일을 말한다. 그러나 그때 다니엘이 9장에서 숙고하도록 되어 있던 "환상"은 외양의 환상인 "마레(mareh)"였다. 이어서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이천삼백 년 예언의 역사적 분석을 제시한다.

제9장은 다리우스 제1년에 성취되었다. 벨드사살이 "고레스 제3년에" 자신이 "그 환상을 깨달았다"고 말할 때, 그는 벌써 두 해 동안 "mareh" 환상을 이해하고 있었다. 벨드사살이 애통하던 "그 날들"에 깨달은 것은 "그 일", 곧 히브리어 단어 "dabar"였고, 정해진 때가 2,520년이었으므로 그 기간은 길었다.

다니엘은 이미 그 '것'의 일부를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는 9장에서 레위기 26장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그 '것'의 기도였다. 애통의 21일 동안 벨드사살이 깨닫게 된 '일곱 때'에 대한 빛이 더해졌고, 그 애통의 날들 동안 '일곱 때'에 비추어진 빛의 증가는 1856년에 있었던 '일곱 때'에 대한 빛의 증가를 예표했다. 밀러파도 이전에 이미 '일곱 때'를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에서 빌라델비아 운동에서 라오디게아 운동으로 전환하던 바로 그 시점에 그들을 시험하려는 추가적인 빛이 더해졌다.

벨드사살의 애곡의 날들은, 1856년에 빌라델비아 운동이 라오디게아 운동으로 전환되고, 이어 1863년에 라오디게아 재림교회로 전환된 때의 예언적 역사와 평행을 이룬다. "일곱

때"에 관한 증가된 빛에 대한 벨드사살과 밀러파의 역사는, 셋째 천사의 라오디게아 운동이 십사만 사천의 빌라델비아 운동으로 전환되는 것과, 또한 애곡의 날들 곧 "일곱 때"에 관한 증가된 빛이 계시되기로 되어 있었던 지체의 때 동안의 그 역사와 서로 일치한다.

벨테샤자르는 전령과 운동을 모두 상징한다. 그의 애통의 날들 동안 전령은 '그것', 즉 진리를 이해하게 되고, 2023년에 미가엘이 두 증인을 부활시킬 때 그 '것'을 한 운동에 제시하게 된다.

1절에서 다니엘이 이해한 것으로 지적되는 히브리어 "마레"(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환상)라는 단어는,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에서 네 번 등장한다. 두 번은 "환상"으로, 두 번은 "모습"으로 번역된다. 다니엘이 1절에서 그 단어를 처음 사용할 때 그는 자신이 그 "환상"을 이해했음을 밝히지만, 나머지 세 번의 언급은 다니엘이 그 환상을 체험하는 것을 가리킨다.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얼굴이 "번개의 모습"과 같았다.

첫째 달 이십사일에 내가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 강은 히데겔이라 하는 강이라.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보니,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의 정금 띠를 띤 어떤 사람이 있더라. 그의 몸도 베릴과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의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불의 등불 같고, 그의 팔과 그의 발은 닦은 놋과 같이 빛났으며,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나 다니엘만 그 환상을 보았으니,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으나 큰 떨림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도망하여 숨었더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남아 이 큰 환상을 보았고, 내게는 기력이 남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변하여 부패함이 되었고, 나는 기력을 보전하지 못하였음이라. 다니엘서 10:4-8.

"환상"으로 번역되는 또 다른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 "mareh"의 몇 가지 특징을 먼저 제시한 뒤 그것을 살펴보겠다. 앞선 구절들에서는 히브리어 "mareh"가 "모습"으로 번역되어 있다. 같은 단어가 16절에서는 "환상"으로 번역된다. 16절에서 그리스도의 환상 때문에 다니엘은 근심하게 되었다.

그때 보니 사람의 자손의 형상과 같은 자 하나가 내 입술을 만지매, 내가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 근심이 내게 임하여 내게 힘이 남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 10:16.

'슬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경첩을 뜻하며, 그 구절에서 다니엘이 본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한 '환상'은 경첩을 축으로 돌아갔다. 예언에서 '경첩'은 전환점을 나타낸다.

과거의 역사에서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다. 모든 이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언제나 하시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이에 주의를 환기한다. 복음이 에덴에서 아담에게 처음 선포된 이래 줄곧 그래 왔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

"나라들과 교회의 역사에는 전환점이 되는 시기들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러한 여러 위기가 닥쳐올 때, 그때를 위한 빛이 주어진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영적 진보가 있고, 거절하면 영적 쇠퇴와 파선이 뒤따른다. 주께서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 복음의 공세적 사역이 과거에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장차 어떻게 전개될지를, 사탄의

세력들이 그들의 마지막 놀라운 운동을 벌일 마지막 투쟁에 이르기까지 밝혀 주셨다."
Bible Echo, 1895년 8월 26일.

열여섯째 절은 벨드사살이 표상하고 있는 역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나타낸다. 그것은 공화주의의 뿔(국가)과 개신교의 뿔(교회) 모두에게 전환점이다. 그것은 위기를 나타내며, 또한 그 역사에 대한 특별한 빛이 주어지는 지점을 나타낸다.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전환점은 다니엘이 세 번 중 두 번째로 "손을 대심을" 받았을 때 일어났다. 다니엘은 세 번 손을 대심을 받을 것이었고, 그가 두 번째로 손을 대심을 받았을 때가 다니엘에게는 전환점이었으며, 그 전환점은 또한 다니엘이 "mareh" 환상을 세 번 본 것 가운데 두 번째 때였다.

그때 보니 사람의 자손의 형상과 같은 자 하나가 내 입술을 만지매, 내가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 근심이 내게 임하여 내게 힘이 남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 10:16.

우리는 곧 세 번의 만짐을 다룰 것이다. 다니엘이 "mareh"라는 단어를 네 번 사용한 것 중 첫 번째는 그가 그 환상을 이해했음을 증언한 것이고, 마지막 세 번의 언급은 그가 실제로 그 형상을 보았을 때의 체험을 가리킨다. 그가 그 형상의 환상을 지칭하는 세 번째는 그가 세 번째로 만짐을 받는 18절이다.

그때 사람의 모양과 같은 이가 다시 와서 내게 손을 대어 나를 강하게 하였다. 다니엘 10:18.

열여섯째 절에 나오는 두 번째 접촉, 곧 "마라" 이상에 대한 두 번째 언급에서는 그의 기력이 쇠하였으나, 세 번째 접촉에서는 그의 힘이 회복된다. 열째 절, 열여섯째 절, 그리고 열여덟째 절에서 다니엘은 손을 대심을 받는다. 여섯째 절에서 다니엘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이어서 가브리엘을 보며, 열째 절에서 가브리엘은 처음으로 다니엘에게 손을 댄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의 정금 띠를 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몸은 녹주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의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불붙는 햇불 같고 그의 팔과 그의 발은 빛난 놋 같은 빛을 띠었으며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다. 이 환상은 나 다니엘만 보았고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으나, 큰 떨림이 그들에게 임하였으므로 그들이 도망하여 숨었다.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 이 큰 환상을 보았으나 내게는 기력이 남아 있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아름다운 빛이 내 속에서 변하여 쇠약하게 되었고 나는 아무 기력도 유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더니,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져 나를 무릎과 손바닥으로 땅을 짚고 일어나게 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크게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들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이제 네게로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가 이 말을 내게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섰더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마음을 정하고 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한 첫날부터 네 말이 들렸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나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아섰으나, 보라, 우두머리 군주들

중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우러 왔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의 왕들과 함께 머물렀느니라. 이제 내가 마지막 날들에 네 백성에게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고 왔나니, 이는 이 환상이 아직도 많은 날에 관한 것임이라. 다니엘 10:5-14.

그런 다음 16절에서 다니엘은 그리스도의 환상을 볼 때 두 번째로 만져진다.

그가 내게 이러한 말들을 하였을 때에, 나는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라. 그런데 보라, 인자들의 모양과 같은 이가 내 입술에 손을 대니, 그제야 내가 입을 열어 말하며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 고통이 내게 엄습하여 왔고, 나는 아무 힘도 간직하지 못하였나이다. 내 이 주의 종이 어찌 내 이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있으리이까? 나로 말하건대, 곧바로 내게는 힘이 남아 있지 아니하였고, 내게는 호흡조차 남아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 10:15-17.

그때 다니엘은 세 번째로 만져지는데, 나타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가브리엘이었다.

그때 사람의 모습과 같은 이가 다시 와서 나를 만지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이르되, 크게 사랑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강하라, 참으로 강하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하였을 때 나는 힘을 얻어 말하였다. 내 주께서 말씀하소서.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였다.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 바사의 군주와 싸울 것이요, 내가 나아간 뒤에는 보라, 헬라의 군주가 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네게 보여 주겠다. 이 일들에 관하여 나와 함께 서는 이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밖에 없다. 다니엘 10:18-21.

다니엘은 세 번 손길을 받았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에 그에게 손을 댄 이는 천사 가브리엘이었고, 두 번째에는 그리스도였다. 다니엘은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네 번 사용했지만, 그 네 번 중 첫 번째인 1절에서는 자신이 그 '환상'을 이해했다고 말하고 있다.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가 나머지 세 번에서 그랬던 것처럼 진리를 체험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

다니엘의 애통의 날들이 끝났을 때 그는 그 환상의 체험을 받았는데, 그 환상에 대해서는 그의 애통의 날들이 끝나기 전에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 그 체험은 세 번의 손길로 나타나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와 마지막 손길은 가브리엘이 행했고, 가운데 손길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 첫 번째와 마지막 손길은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상징했다. 그 두 번째 단계에서 다니엘은 주님 앞에서 자신이 반역적인 죄인이라는 처지를 깨달았고, 그러므로 가운데 손길은 반역을 상징하며, 이는 히브리 알파벳의 열세 번째 글자로 상징된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배나 화물 따위에는 마음을 두지 않았다. 그가 지금까지 목격한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기적은 그에게 신적 능력의 나타남이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자연을 그분의 권세 아래 두고 다스리시는 분을 보았다. 신성의 임재는 그의 거룩하지 못함을 드러냈다. 주님에 대한 사랑, 자신의 불신앙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감사, 무엇보다도 무한한 정결 앞에서 느낀 자기의 부정함이 그를 압도했다. 동료들이 그물에 든 것을 챙기고 있는 동안, 베드로는 구주의 발 앞에 엎드려 외쳤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같은 임재가 선지자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죽은 사람처럼 쓰러지게 하였다. 그는 말하였다, '내 아름다움이 내 속에서 부패로 변하였고, 나는 아무 힘도 남지 않았다.'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도 그는 외쳤다,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함이라.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주를 보았음이다.' 다니엘 10:8; 이사야 6:5. 연약함과 죄를 지닌 인간성이 신성의 완전함과 대비되자, 그는 자신이 철저히 부족하고 거룩하지 않다고 느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을 보게 허락받은 모든 이들이 이와 같았다.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외쳤으나, 그럼에도 그는 그분과 떨어질 수 없다고 느끼며 예수의 발에 매달렸다. 구주께서 대답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으리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자신의 자격 없음을 깨달은 후에야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위탁받았다. 베드로 또한 자아를 부인하고 신적 능력에 의지하도록 이끌림을 받은 뒤에야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시대의 소망, 246쪽.

"마레"(mareh) 이상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한 이상이지만,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그 단어를 두 번째와 네 번째로 사용한 경우에 의해 나타난다. 첫 번째는 벨드사살이 그 이상을 깨달았다는 진술이었으나, 마지막 세 경우는 다니엘이 그 이상을 경험하는 것을 나타낸다. 다니엘이 그 이상을 경험하는 세 경우에, 그는 또한 손길을 받는다.

가브리엘이 그를 처음으로 만진 것은 그가 영광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본 뒤였고, 그 경험으로 그는 "내 얼굴이 땅을 향한 채 엎드려 깊은 잠에" 빠졌다. 그 환상은 분리를 낳았으니, 그와 함께 있던 이들은 "환상을 보지 못하였으나 큰 떨림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숨으려고 도망하였다." 첫 실망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손 때문에 홀로 앉았고", 벨드사살에게는 "힘이 남지 않았다. 이는 나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부패로 변하였고, 나는 아무 힘도 남기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가브리엘이 그를 처음으로 만지자, 그는 다니엘을 무릎과 손바닥 위에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자신이 말하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고 명하였고, 다니엘은 떨고 있었지만 그대로 일어섰다. 그 후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애통하던 스물한 날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그는 그 스물한 날 동안 페르시아의 왕들과 싸우는 가운데 미가엘이 전투에 참여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으며, 이어 자신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고 다니엘에게 "후일에 네 백성에게 닥칠 일"을 설명하러 왔다고 밝혔다. 미가엘이 하늘에서 내려오자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를 설명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가브리엘의 설명은 애통의 21일이 끝날 때 다니엘에게 주어졌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11장을 줄 위에 줄 방식으로 적용할 때 에스겔 37장에서 에스겔이 죽은 뼈들에게 두 번 예언하라는 명령을 받아 그들의 무덤에서 두 선지자를 일으키는 때를 나타낸다. 그것은 미가엘이 하늘에서 내려와 모세의 몸을 다시 살리면서 유다서에서 사탄과 상대하기를 거부할 때에 일어난다. 가브리엘이 애통의 날들에 대한 개요를 전한 뒤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두 번 더 만짐을 받게 될 것이다.

가브리엘이 말을 마친 후, 다니엘은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병어리가 되었”으며, 그 후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니엘의 “입술을 만지”셨고, 이에 다니엘은 “입을 열어 말하여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 근심이 내게 미쳤으므로 내가 힘을 잃었나이다. 그러하온즉 이 내 주의 종이 어찌 능히 이 내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있으리이까? 나로 말하건대 곧 내게는 힘이 남아 있지 아니하였고, 또 내게는 호흡도 남아 있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하였다.

그리스도를 뵈고 그와 말씀을 나눈 체험은 다니엘을 티끌까지 낮추었다. 그는 말을 하지 못했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입술을 만지지 않으셨더라면 계속 그렇게 있었을 것이다. 이는 제단에서 가져온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이 만져졌던 것과 같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이사야가 주님의 영광과 위엄에 대한 이 계시를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순결과 거룩하심 앞에 압도되었다. 자신을 포함하여 오래도록 이스라엘과 유다의 택한 백성으로 헤아려져 왔던 이들의 죄악된 길과, 그의 창조주의 비길 데 없는 완전하심 사이의 대조가 얼마나 날카로웠던가! 그는 부르짖었다.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함이라.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음이니라.' 5절. 마치 성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한 빛 가운데 서 있는 듯이, 그는 만일 자기의 불완전함과 무능함에 맡겨진다면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을 전혀 이루지 못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의 고통을 덜어 주고 그를 그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한 스랍이 보내심을 받았다. 제단에서 가져온 타오르는 숯불 하나가 그의 입술에 대어지며, '보라,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네 죄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는 말씀이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는 음성이 들렸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였다. 7, 8절.

“천상의 방문자가 기다리고 있던 전령에게 명하여 이르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라. 너희는 참으로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보되 알아차리지 못하느니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무겁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혹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9, 10절.”

그 예언자의 임무는 분명했다. 그는 만연한 악을 규탄하며 목소리를 높여야 했다. 그러나 그는 조금의 희망이라도 있다는 확신 없이 그 일을 맡기를 두려워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고 그는 물었다. 11절. 주의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깨닫고 회개하여 고침을 받을 자는 하나도 없는가?

그릇된 길을 가는 유다를 위해 그의 영혼이 짊어진 짐은 헛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의 사명도 전적으로 열매 없이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여러 세대에 걸쳐 불어나 온 악은 그의 시대에 제거될 수 없었다. 그의 평생 동안 그는 인내하고 담대한 교사, 곧 멸망을 예고함과 동시에 희망을 전하는 예언자가 되어야 했다.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질 때, 그의 수고와 하나님의 모든 신실한 사자들의 수고가 온전히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남은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는 반역하는 나라에 경고와 간구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선언하셨다. '성읍들이 주민 없이 황폐하게 되고, 집들에는 사람이 없고, 땅이 완전히 황무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시고, 땅 한가운데 큰 황량함이 있게 되기까지! 11절, 12절.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닥칠 무거운 심판—전쟁, 유배, 억압, 열국 가운데서의 권세와 명성의 상실—이 모든 것은, 그 속에서 노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보는 이들이 회개로 이끌리도록 임하게 될 것이었다. 북왕국의 열 지파는 머지않아 열국 중에 흩어지고 그들의 성읍들은 황폐하게 남겨질 것이며; 적국들의 파괴하는 군대가 그들의 땅을 거둬들일 것이며; 마침내 예루살렘도 함락되고 유다는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나, 약속의 땅이 영원토록 완전히 버려진 채로 남아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하늘의 사자가 이사야에게 주신 확언은 이러했다: “그 가운데 십분의 일이 남으리니, 그것도 돌아와서 먹힘을 당하리라: 상수리나무와 밤나무가 잎을 떨어뜨릴 때에도 그 속에 생명이 남아 있듯: 그와 같이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가 되리라.” 13절.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확신은 이사야의 마음에 용기를 주었다. 설령 세상의 권세들이 유다를 대적하여 진을 친다 한들 어찌하랴? 설령 주님의 사자가 반대와 저항을 만난다 한들 어찌하랴? 이사야는 왕, 곧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고,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는 스랍들의 찬송을 들었으며, 배도한 유다에게 주어지는 여호와의 기별에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받았다. 그리하여 그 선지자는 자기 앞에 놓인 사역을 위해 담대함을 얻었다. 3절. 그의 길고도 고된 사명을 수행하는 내내 그는 이 환상의 기억을 간직하였다. 육십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유다 자손들 앞에서 소망의 선지자로 서서, 교회의 장래 승리에 대한 그의 예언에서 점점 더 담대해져 갔다. 선지자와 왕들, 307-310.